



拜汾陽<sup>의</sup>以後一通<sup>의</sup>觀之則二三其本<sup>의</sup>甚於渾貫趙李<sup>의</sup>乃知陶翁所謂  
無他信蹟不敢連系者<sup>一</sup>豈非誠然固當耶<sup>아</sup>

附鵝洲申氏族譜에對한辨證

삼가 宗中僉位의 繁榮과 幸福을 祝賀함니다 仰告事는 去年 安東에서 出版한  
鵝洲申氏族譜中에 너무나 많은 誤謬가 있어 辱이 祖上에 끼쳐졌을 辨만 아니라  
族末에 까지 이치고 있으므로 國史의 잘못도 是正하고 있는 族末 로서는 가안이 있  
을 수 없어 그 잘못을 辨證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今般에 出版된 鵝洲申氏族譜를 보면 第一世를 益休로 하고 그父를 淑으로 하고 淑을  
壯節公의 十世孫인 衍의 同生으로 하여 平山申氏外世系를 부쳐 놓았는데 平山申  
氏族譜外 우리 族譜를 比較하여 世系를 表示하면 다음과 같읍니다

崇謙 禱 衍 仲明

忠烈王八年  
(一三八二)生

淑

益保 益休 英美 晉升 得昌 允濡 祐

忠烈王六年  
(一三八〇)廢圖  
生 至正四年(一三四三)  
判書任命 護軍任命

以上世系中 첫째로 申淑은 高麗時代의 正史인 高麗史列傳에 爲始하여 우리나라  
各種史書에 나타나는 有名한 人物로서 高靈申氏인 것이 明白하여 平山申氏族譜에  
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임니다 萬一이라도 우리 族譜를 든다면 우리는 平申에 붙  
으려고 하다가 平申에도 붙지 못하고 高靈申氏의 後孫이 되게 되는 것이니 이  
러한 著恥가 어디에 있음니까

둘째로 益休는 다음에 說明하는 바와 같이 距今 一百四十九年前 公州의 狹  
雜人 金魯定이 僞造한 것으로 陶窩公(申鼎周)의 手筆 西湖紀行에 依하여  
明白함니다 架空의 人物을 어떻게 우리의 祖上으로 삼았읍니까  
셋째로 百步를 讓步하여 이世系를 그대로 認定한다 할지라도 年代에

큰矛盾이 있음이다. 前揭世系에 依하면 平申의 祖上인 仲明은 우리 版圖判書公 允字濡字의 高祖(益休)의 四寸兄이 該當함이다. 國史外 平申族譜 및 우리들의 家藏文書에 依하면 允字濡字가 版圖判書에 任命된 것이 西紀一 二〇年인 忠烈王六年이요 仲明의 出生한 것이 西紀一 二八二年인 忠烈王八年 이니 너저 高祖의 四寸兄이 出生하는 것보다 二年前에 版圖判書에 任命될 수 있음이까 이한가지 事實으로서 以上世系의 虛僞임을 證明하고도 남음이 있음 이다.

元來가 우리 鵝申의 始祖는 英字美字로서 義城과 其他 우리 鵝申 各家庭에 保有하고 있는 옛날 家牒에 明記되어 있는 마로서 疑心할 餘地가 없음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여서 益休 以上의 假字祖上이 우리 族譜에 되어 들었는가 하는 데 對한 顛末은 陶窩公의 西湖紀行에 依하여 記述하겠음이다. 只今으로 부터 約一百四十九年前 純祖十七年(西紀一八七)에 公州에서 金魯

定이란 者가 挾雜을 하기 爲하여 諸家의 先代世系를 僞造하였는데 이中에 益休 以上의 우리 鵝申祖上을 만들어 놓았느니라.

清州派의 申克祚氏가 이것을 보고 義城에 通知하므로 邑龜兩派에서 各各代表 한 사람씩 選出하여 이를 調査하게 하였는데 龜派의 代表는 陶窩公申鼎周氏요 邑派의 代表는 (寓庵)申致教氏였음이다. 두분은 돈四百文(四兩)과 꽃장一點 종이一卷을 禮物로 가지고 公州에 가서 金魯定을 訪問하였는데 이때 綾城具氏도 또한 그들의 世系를 參考하기 爲하여 禮物를 가지고 왔음이다.

陶窩公은 學識이 豐富한 분이다. 모두 根據없는 造作임을 發見하고 둘아외 考譜錄을 作成하여 그 虛僞를 밝혀 놓았는데 一九〇八年에 邑派에서 戊申譜를 發刊 할 때 益休를 英字美字의 父로 改였음이다.

戊申譜는 우리 鵝申 最初의 族譜로서 처음에 邑龜兩派가 合同하여 族譜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邑派에서 金魯定이 僞造한 益休 以上의 祖上을 改지 않고 龜派에서

는 이것을 反對하여 合議를 보지 못한 까닭에 마침내 邑派單獨으로 發刊한 것이니  
 그대도 益休를 一世로 하지 아니하고 凡例에 益休字를 一世로 할 것이므로 家藏古  
 牒에 英字美字를 一世로 하였음으로 英字美字를 一世로 한다」고 記錄하여 本文에  
 英字美字를 一世로 하고 그欄外에 小字로 益休子」라고 記錄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一九三五年以後에 龜派의 乙亥譜外 邑派의 丁丑譜에 이르러서는 모두 益  
 字休字를 一世로 하고 今般또한 그렇게 하였으니 이 무는 虛禁이오 妄發입니다  
 뿐만 아니라 戊申譜에는 衍淑을 父子로 하고 乙亥 丁丑譜外 今番의 族譜는 兄弟  
 로만 들어 놓았읍니다 衍淑을 兄弟로만 들어 놓은 것은 華海師全에 依한 것  
 같은데 華海師全도 誤입니다 거짓말만 써 놓은 따인 것은 天下가 共知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僞書에 依하여 不過三十餘年 사이에 父子로 하였다가 兄弟로만 들어 놓았으  
 니 妄發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族譜를 어떻게 남에게 보이며 子孫들에게 傳할 수 있읍니까 그리고 壯

節公以下 壬申의 祖上十代를 우리 祖上으로 고인 關係上 本人의 十四代 祖 將仕郎公  
 의 諱字 歲字가 壯節公의 曾孫 諱字外 같기 때문에 將仕郎公의 諱字를 玉篇에도  
 없는 賊字로 고쳐 놓았으니 이런 法이 어디에 있던 말입니까 假字 祖上 때문에 眞  
 字 祖上의 이름까지 고쳐 놓았으니 痛嘆하기 짝이 없으며 特히 將仕郎公의 曾孫  
 이 되는 本人으로서는 이러한 族譜를 出版한 사람에게 責任을 追窮하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또 今番 族譜에 對하여 異議를 말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族譜를  
 主宰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國史의 權威者인 申奭鎬도 이 族譜에 들었는데 너  
 의들이 무슨 잔소리냐」 하고 本人을 관아서 反對者의 입을 封鎖하고 自己들의  
 잘못을 合理化시키려고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읍니다

本人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族譜에 贊同하지 아니하고 本人의 支宗인 茂林 族親  
 에게 우리 派는 修單하지 말 것을 指示하였으나 茂林 族親들은 本人도 모르게 舊

譜에 의하여 本人의 修單까지 提出하였다는 말을 追後에 들었읍니다

이와 같은 關係로 本人의 이름이 이번 族譜에 든 것 같은 데 이것은 絶對로 本人

의 意思에 依한 것이 아니니 僉宗은 숙지가 시기를 바랍니다

要件에 今番 出版된 우리 族譜는 到底히 後孫들에게 傳할 수 없는 辱된 族譜임

니다

國史에도 잘못이 있으면 고치는 데 하물며 汗宗 親의 歷史이리오 우리 鵝申은

옛날 家牒에 있는 바와 같이 英字美字를 始祖로 하는 獨特한 申哥이며 平

申과는 아무런 關係도 없는 것임니다

린것은 겹다고 하여 고지들을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平申 族譜에 없는 淑

益休와 같은 架空的人物을 가지고 平申과 同族 行勢를 할려고 하여도 平申

에서 認定해 주지 아니하여 드리어 自己羞恥한 데 할 뿐임니다 族親諸位여

남의 祖上에 依支하여 살려고 하는 事大主義를 버리고 自主精神을 가지고

곧 세계 살어나 갑시다

今番 義城으로부터 申鎬稷 申翼煥 申泓 申達燮 申珪遠 申碩基 諸位

가 일부로 서올까지 올라와 英字美字를 始祖로 하는 眞字 族譜를 만들자 함

로 本人은 欣然이 이에 應하고 지난번 族譜의 잘못을 辨證하는 바임니다

一九六五年三月二日

文學博士 申奭鎬

附 參 攷

晦屏公世牒卷首小識

鵝洲는 巨濟屬縣이 今 巨濟府 鵝洲縣에 尚多有姓申者云 이라 或謂 韓山의

舊號 鵝洲이 申之先이 疑出於 韓山而州與洲字 固不同 이라 按 退溪李先

生이 嘗撰 申龍宮 遷 龍宮는 當作 參奉의 遷는 當作 椿年 墓碣에 曰公은 巨濟人 이라 先祖 孤松府君

이 司馬 榜眼 印本에 書曰本은 巨濟 이라 鵝洲之爲 巨濟地 無疑矣 라 故 互觀

故籍에 或書以 巨濟 라 或書以 鵝洲 라 未嘗 不迭用而

鵝洲世牒卷首小識

族譜傳疑顛末

今蓋族之無或以巨濟且書本且但稱鵝洲一若相謀以然以未知始於何代  
 又觀先輩手書以如詩箋題名等處或稱梅城後人而梅城非巨濟舊  
 號或鵝洲縣一名且稱梅城歟亦未可知也且按吉治隱夫人是為鵝  
 洲申氏而洲字或書以州且圃隱集載圃隱文科榜目有曰申仁甫一  
 擢丙科一人其貫且曰鵝州而州字亦不從水且未知是亦巨濟鵝洲而  
 洲與州音同而字相近故且乃未免錯書歟抑別有一申姓出於韓山  
 而自以韓山舊號且為貫歟或云鵝洲氏本自平山且分出俱為壯節  
 公後其說亦無恠而無信籍可据宜并竝博雅君子更質焉歲  
 辛亥月日鵝洲後人申體仁衰病垂死追惟本始為修世系一通  
 略附以事實文字且因究論所貫鄉邑俾後人且得有所攷云爾

清川派庚子譜卷首附書

鵝姓譜所考勝附 申崇謙子甫藏子弘 尚子晟子勁子愈此子命夫子應時子令

右吾鵝洲申與平山申氏且同祖云而無文獻可徵猶未為信然也且  
 自我先輩且積有年所而尚無可考處矣往在丙子族弟任祚與族姪  
 性根且考禮山金魯定家所在萬姓譜壯節公以下至十三世益休以  
 軍功且封鵝洲君以為信矣而今此譜單修正之日不敢以鵝洲君且為  
 始祖且附書卷首以待後日之識者更加修正焉且族末弘祚謹書  
 宗禎四周庚申三月日修譜距今壬寅  
 百三年

攷譜錄

聞平山申氏殷山伯派有鵝平分貫之傳說且庚子正月十五日往于奉  
 化郡勿野面水息里申詰均氏家攷平山舊譜則只有益保希保素無益  
 休又考今番新刊平山大同譜則以不敢序系之義且從僉議且闕淑字云  
 云且

距今三十一年前乙亥修譜時持論幾位七百餘年傳來家家世牒

不遵且但以華海師傳申考稷所辨偽書斗金魯定家以別紙書付外越章間錄斗空  
紙細書姓苑叢錄等書是徑信斗以益字休字且追戴於始祖笑字美字之  
上焉斗

各派世牒攷

城隱公位宗家世牒斗梧峰公之悌宗家世牒斗同知公之行宗家世牒斗晦  
屏公體仁宗家世牒斗陶高公鼎周宗家世牒斗養浩齋祖舜府君手筆世牒  
斗所止派傳守世牒斗距今一百五十餘年前丙子丁丑年間所刊鷹巖公之  
考實紀世系圖外敬易齋公學淵宗家世牒等斗皆以英字美字且為始祖斗  
比安安定洞平申家所攷出陶高公攷譜錄中  
壯節公十世孫衍十一世孫淑十二世孫益保希保希保子憲周上護軍上護  
軍子昱靖國公平原君平原君珖十一世孫有諱益休  
龜邑兩派先世諸名碩狀碣等文斗且但稱鵝洲人斗而本無鵝洲君與平山公

貫之說斗

二十二世諱祖舜養浩堂公

以慎色自警

族末鎬稷 泓等謹錄

夏桀寵昧喜之巧其柰亡國之嘆殷紂嬖妲己之妖自致焚身之禍吳王愛鸚  
娃之美容悔莫及於越兵登臺之日晉公惑驪姬之奸計恩已割於申生縊城  
之時周幽悅褒姒之笑不覺犬戎之侵陳靈戲夏姬之淫忽被徵舒之射項王  
空泣虞姬之和歌金甌失於垓營之月夜明皇猶念楊妃之嬌態玉趾勞於蜀  
山之雨霖漢成促壽實由趙婕妤溫柔之鄉唐高駘風自在武昭儀暱狎之席  
桃李爛開隋宮之中人傳遼野浪花之曲玉樹飄零陳庭之下誰識莊山柰何  
之聲天子以是而失天下諸侯以是而喪邦國卿大夫以是而亡其家士庶人  
以是而殺其身其為慎也甚於水火而不慎則其不顧家不顧身者也不顧家  
不顧身則非人倫而非人倫則其可謂人乎

二十三世諱學泓敬易齋公

鑑厓精舍記

出韶州西三十里山自遠遠而來者斷而為厓于頂趾之間夷衍爽塏流川前抱匯而為泓滢澈如鑑是故得名為鑑淵宜一榭排置吾宗諸先哲杖屨經履之日草樹溪山何處非精采所寓而曾未有經奇於此者豈其泉光嶽色昔為草林掩翳至其童濯如洗而始露真面耶余非有風致者而居閑養靈之願蓋宿矣且其村落雖近而囂喧不到大道當前而塵氛乍隔看書玩理足以好送餘年於是築數架屋子因以鑑厓扁楣愚溪之善鑑萬類方塘之一鑑半畝未知孰多而孰少於是拓窓臨軒目遇而鑑者不一而足蓋其三寶諸峰聳于前雙遷翠壁橫于下船放峙于南錦屏環于西南武台限于西北皆厚重端正有似德器深厚人坐鎮深俗者山之勢也二川東南來者無傾灘急瀨而緣厓上下宛轉回護而不見水之去處長堤南北楊柳蘆荻隨序而變循浦左右鷗

鴻鷗鷺作伴而遊朝煙暮靄牧笛互鳴春耕秋熟農畝迭奏物之態也環壇松竹韻致蕭爽臨砌花草生意冲融則主人之事不期然而自閑矣客到而棋聲雜於松水人定而書史忘其晷景吾道真詮自不外於鑑衡先天河洛可以刻於磨厓且夫其北則樂善古堂孤松公之遺躅可挹其西則錦屏高亭晦屏翁之餘光不沫飲啖於斯寢處於斯其或有默契於心者夫是為記以表晚境菟裘之私云爾

行狀

士生於世行而不得致君澤民則藏而斯養德林藪飽飫以沒勢所必至者然近水樓臺常多明月之光陰厓卉木每欠陽春之澤茲豈非覆載生成之偏者歟余於鑑厓處士申公蓋有感焉公諱學泓字景源生以純廟辛巳月日頭角不凡聰悟已兆於髫髻時始學于族兄龜厓公不鞭而篤不勉而進有時神昏氣倦兩睫自交則沃面懸髮以警之其於蕭寺就課徹夜青燈勤苦如一先



進長德皆以先大門戶誦之其讀史自東周夕陽以至秦漢六朝隋唐五季傑  
 而顛遜而綿裂而促者無不推其始而驗其終瞭然於理亂興衰之鑑於經傳  
 則一句半行未敢泛忽看過步履言動自為柯則偉然有老成風範吾東取士  
 之制以六體文句作十日工趨走於荆棘之園公亦為親課習凡可以試於有  
 司者皆練手藁腹不須人喉吻自此可直往窻而世無包老閻羅踰牆鑽隙之  
 俗恬不知恥遂卷懷東岡日與副墨子洛誦孫琢礪而忘寢食焉易象河洛尤  
 為致力而留心觀其所覩則劉牧易置始定於磨厓之刻無極指掌莫眩於江  
 西之惑上下編例昭晰於來氏之說又如三十六宮之義蓋在交易不易之卦  
 而推以廣之春日之策不獨乾坤為然六子老少辟卦陰陽之分皆為三十六  
 數此雖出於先儒之論而窮居獨見之能及於此亦豈易哉且如棋局之內八  
 為八卦之象外點十六為十六之象縱橫十九行為十九章之義居中一點為  
 大極之位總數三百六十為乾坤春日之策則陸象山河圖數之說自為吻合

各為論說而垂之梅窓朱露到老滴滴且如其洪範儒行四書洛發之要言至  
 訓輪環誦咏作為程課每月朗人定響凝虛簷村孺巷婦以是卜夜刻之早晚  
 云則其兀兀矻矻斃而後已者殊非末世鈞采者倫而名不出州閭政不過家  
 術卒坎壈困厄與草木同腐何哉自念世故波翻隻手無容而每覽古來風節  
 奇偉之蹟未嘗不三復感歎如富春遺史潯陽清標錦城苦忠尤有所曠懷未  
 已作歌以寓志焉人倫日用之常則奉侍兩庭情愜不萌愉色常摯定省而適  
 其體甘旨而稱其口承順而養其志雖閭里暫出未嘗違越方所先期反面不  
 使勞門閭之望鄭夫人在攝多年公翔矧不定不解帶不交睫而嘗糞禱天洞  
 洞屬屬期護冥佑而大化所定終不得久延絳籌竟以乙卯十月日遭憂公斗  
 號擗踊不知有身而送終諸節式禮無愆後丁先考憂易戚耦至一視前喪及  
 到喪餘極意誠慎湘釜奠牖必躬致淨潔入戶而如見其位出戶而如聞其聲  
 俗節上墓每以新物為羞雖瘡年傳緒非甚病不令替奠申戒子姪曰禮者生

於有而廢於無古人之石魚時祭白粥三加豈不知儉而猶爾者以其存羊之義也且三獻不備無以成禮汝輩常須念念勿墜焉公天稟重厚性度和溫鄙悖之辭暴慢之色未嘗一露於酬討之際嘗曰暗室幽隱之中內省不疚方見為學之實又曰衣取蔽體而已食取充腸而已若以惡衣惡食為恥則孔子所訓未足與議者豈欺我哉又曰人唾我面待唾自乾矯激不足戒也羹汙朝服便問爛手則急遽不足憂也每舉似門庭俾有所銘佩不忘焉公平居未嘗留意營殖邊豆錢穀亦條緒井井河檀之干庭有貆而困有禾東南車轍鎮日盈門而笙簧永夕觴豆無空恩愛浹於卑賤任恤周於族姻雖薄俗善於吹覓而未嘗以睚眦暫加方癸甲東撓之熾也牽縛之辱無所顧忘徽索之濫徧于豪饒而迄于丙申公私兵卒尤以掠奪為能脅勒為事公坐處四通之郊未嘗一見侵凌其厚望深仁見重於丘保自可推矣所居東區遠山至此而陡四勢周遭清流映帶澄澄如鑑匡亦夷衍高踞眺望極佳公築數架精舍扁以鑑匡松竹

蘭菊列植墻圃雲煙諸勝餉以天放賓朋時至或歷落書史或寓懷棋酒風和日朗或携筇徙倚平郊禾麥秋夏而異色夾岸川流暘雨而殊景聊以為晚暮棲身之地而韋公之羸訓龐公之遺安蓋不足多讓也丁酉四月日以微恙考終于寢享年七十七始葬家後先兆內後遷于鳳陽面中里后佛堂嶺向巽之原鄉隣知舊咸齋咨涕洟為詩若文而哭送曰善人亡矣故範盡矣公鵝洲人勝國時版圖判書諱允濡以清直著人或擬之於唐介諱祐按廉使事親至孝廬墓有雙竹之異蒙棹楔之典值革命請于杜門入本朝曰光貴知事曰希信郡守曰介甫司直曰應璧參奉曰命漢察訪七世以上也高祖曰聖欽曾祖曰大臨祖曰獲考曰翊元妣傷川鄭氏東源女曰大謙曰稔曰翊德本生曾若祖祖若考也妣晉州姜氏致祥女也配真城李氏處士孚命女先公二十九年而沒葬村前三寶峰西麓坐乙原男定基世基女趙性三定基男鍾達女李泰龍李泰華安永鎬世基男鍾哲女金連燮李壽金元輝鍾達男龍河龜河女柳

氤佑洪炳轍餘幼余在鄉隣晚契之列雖未有一二眇睐之暇聞其德義於傳誦之口則亦夙矣龍河君聞抱遺事而來請曰善狀不備不可以擅揚德媿願賜一言之惠辭之屢矣其言益懇故茲綴拾文稿所載與遺事庸塞慈孫之情云爾

完山柳鳳熙撰

